

경기침체 경고음...장단기 금리 역전 장기화

장단기 금리 역전폭 0.166%p...역대 2위

14거래일 간 이어져...미국도 41년만 최대폭 역전

국내 채권시장에서 만기가 짧은 채권 금리가 만기가 긴 채권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불황의 전조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3년물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4거래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없었던 때는 지난 1일 하루 뿐이다.

전날 장 마감 기준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019%포인트 하락한 3.657%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39%포인트 내린 3.49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역전 폭은 0.166%포인트로 전날(0.146%포인트)보다 확대됐다. 이는 역대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던 지난 9월 26일(0.213%포인트)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역전폭이 큰 것이다.

실제로 역대 3~10년물 금리 역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1월~2008년 1월과 2008년 7월 두 차례가 유일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

상기가 세 번째 역전이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국채금리가 단기물 국채금리 아래로 내려가는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후 통상적으로 1~2년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국채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도 장단기 금리 격차가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역전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3.421%)와 2년 만기 국채 금리(4.264%)의 격차가 0.8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1981년 10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같은 날 10년물과 3개월물(4.210%) 금리 격차도 0.88%포인트로 벌어지면서 1981년 이후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을 바로 반영하는 3개월물 국채 금리는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 왔

다. 반면, 미국의 향후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달 초 4.2%에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내년까지 계속되면서 최종금리가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단기 금리가 높아진 반면,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에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의 경기 침체 경고가 잇달아 나오며 역전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JP모건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불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고, 웰스파고는 경제 둔화가 확실시 발생 중이라고 평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잇달아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뉴시스

광주 빚고을 김장대전 181톤 판매

10억9천만원 상당...택배 62톤, 타 지역 3700여 건 주문

광주시는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1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 진행한 '2022 빚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서 181t, 10억9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

1022가족이 김장철을 맞아 사전 주문한 집집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현장에서 김치를 담갔으며, 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뜻깊은 나눔행사를 전개했다.

특히 올해는 김장 판매 물량 181t 중 62t은 택배로 판매했으며, 경기도(1094건), 경상(287건), 전라(226건), 충청(106건), 제주(79건) 등 3700여 건이 타 지역에서 주문했다.

김장대전 김치는 세계김치연구소

와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공동 개발한 조리법으로 광주 김치의 맛과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배추, 신안 천일염, 함평 고춧가루, 여수 말치액젓 등남도 정정지역의 원부재료를 공동구매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또 광주시와 대통령상 수상자가 철저한 검수를 통해 고품질의 김장김치가 제공되도록 지원했으며, 앞치마·장갑·그릇 등 김장비품은 무료 제공했다.

올해 행사는 김치문화 계승 발전 및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11월 22일 김치의 날에 맞춰 김장대전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연형안 기자

김동근 광산업진흥회 제8대 상근부회장 취임



김동근 한국 광산업진흥회 제8대 상근부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1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미 구축된 광융합 지원 인프라의 고도화와 국내 유일의 광융합 발전 전담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해 회원사의 이익도모는 물론 국내 광융합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상근부회장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내년도 여러모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광관련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융합산업 전담기관 역할 강화 및 정체성 확보 ▲광융합 종합지원체계 구축 ▲회원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글로벌 시장진출 전주기적 지원체계 강화 ▲회원사 등 산학연관 교류 확대 ▲광융합산업통계 국가승인통계지정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마련 및 경영혁신방안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넥슨, 카트라이더 18년 만에 서비스 종료

넥슨의 장수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서비스가 막을 내린다. 지난 2004년 출시된 이후 18년 만에 유저들 곁을 떠나게 됐다.

조재운 다투스튜디오 디렉터는 11일 카트라이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카트라이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비손에서 다양한 각도로 논의되어 왔고, 카트라이더 IP(지식 재산)의 새로운 방향성과 미래를 위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트라이더는 내년 1월 12일 서비스 예정인 공식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조 디렉터는 오는 1월 5일 2022 카트라이더 리그 슈퍼컵 결승전을 마친 뒤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2일부터 1월 2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나선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에서도 14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뉴시스

지방 속수무책 '강통전세 공포 확산'...연립·다세대 특히 위험

영월 103.4%·안동 103.1%...매매가<전세가 '역전세'

지방 주택시장에서 '강통전세' 발간불이 커졌다. 통상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곳도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강원 영월군과 경북 안동시, 구미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각각 103.4%, 103.1%, 101.1%에 달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보통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강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경북 김천시(99.0%), 양산시

(97.4%), 창원 의창구(96.4%), 부산 기장군(95.3%), 대구 남구(95.2%), 대전 동구(94.0%), 김해시(93.9%), 전주 덕진구(93.6%), 청주 원유구(93.5%), 진주시(93.0%), 울산 동구(92.9%), 충남 보령시(92.8%), 충남 서산시(92.6%), 전남 목포시(91.3%), 천안 서북구(90.7%) 등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 일때는 강통전세의 위험이 적어진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아파트 시장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

만 서민 거주가 많은 빌라는 전세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지만 연립·다세대는 81.9%를 나타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 법원 등 기정보관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1만15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71건에 비해 45.7%나 늘어난 수치다.

강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뉴시스

광양만권경제청,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적극 나서

지난 6~10일, 일본·싱가포르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소에 따라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지난 6일~10일까지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일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나고야 지역의 수소 및 신산업 기업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GFEZ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 우수한 인력자원 및 인프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

의응답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나고야시 기업의 광양만권 투자 측면 지원, GFEZ-나고야 경제인 간 상생협력 및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나누었다.

또한 투자관심 기업인 스키우라제 작소, 아스타코키(주), 오가키정공(주), 이토제작소 등 4개 기업의 분사 및 공장을 직접 방문해 1:1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주후 자동차 부품과 전기자동차 시

장에서 수소와 연계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그린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10일까지 텅레이, 소리픽, 화웨이 등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램스, 스타론 등 그린에너지 재무적 투자사 및 싱가포르기업협회 등을 방문해 GFEZ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광양·조순희 기자

스포티지·투싼, 독일서 일본차 이겼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평가...“日 하이브리드 앞서”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일본 하이브리드 SUV 3개 모델을 제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웃도 자이팅(Auto Zeitung)'은 최근 게재한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 5개 차종 비교평가에서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을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했다.

그간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의 대표 모델 'RAV4'를 포함해 닛산 '캐시카이', 마쓰다 'CX-5' 등 동급 일본 하이브리드 SUV를 큰 점수차로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포티지와 투싼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일본의 풀-하이브리드 SUV 대비 높은 제품 경쟁력을 나타냈다.

아웃도 자이팅은 아웃도 빌트, 아우토 모토 언트 슈포르트와 함께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비교 평가는 유럽 콤팩트 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5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body) ▲주행 컴포트(driving comfort) ▲파워트레인(powertrain)



기아 스포티지. /기아 제공

▲주행 성능(driving dynamic) ▲친환경/경제성(environment/cost) 등 5가지를 평가했다.

스포티지는 ▲바디 ▲주행 컴포트 ▲주행 성능 등 3개 항목에서 경쟁 모델을 앞서며 총점 2986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투싼도 2982점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2976점을 받은 RAV4, 4위는 2957점의 캐시카이, 5위는 2894점의 CX-5다.

스포티지는 바디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인 ▲조작성/기능성 ▲적재하중/견인하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주행 컴포트 항목의 세부 항목 중 ▲시트 컴포트 ▲공조 시스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제동 컨트롤 ▲열간 제동거리 ▲주행 안전성에서 점수차를 벌였다.

투싼은 바디 항목의 ▲전석 공간 ▲트렁크 볼륨과 주행 성능 항목의 ▲제동 컨트롤과 ▲트랙션(견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위기 한전에 대출...금융시장 '구원투수'

5대 금융지주, 연말까지 95조원 유동성 공급하기로

은행권이 '역머니무브'에 몰려든 펀딩돈을 기반으로 자금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전력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나섰다. 기업들은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 대거 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한국전력에 1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하나은행이 6000억원을, 우리은행이 9000억원을 한전에 대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한전채 발행 자체와 은행 대출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한전에 추가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채로 인해 다른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에 더해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한전에 채권발행 대신 은행을 통한 대출 등을 권고해왔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채권시장 불안 상황 속에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한전 대출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95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전

력 등 공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특은 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억어음(ABCP) 매입,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머니마켓펀드(MMF) 운용규모 유지, 제2금융권 크레딧라인 유지, 채권시장안정·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등이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원, 채안펀드·증권펀드 참여에 12조원, 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에 10조원을 투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채안펀드, 증권펀드 등 자금 조성에 나서야 하고 기업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 조달 수요가 많다"며 "가계대출 감소에도 기업대출은 우상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현금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